



# 나누

“희망을 지피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1 7·8

## 코로나 상황에서 견진성사를...

이정희 소피아, 영적가족 9기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수준인 나는 주변의 권유로 견진성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지난가을에 예정되었던 견진성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되었으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본당 주임 신부님의 결단으로 드디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6월 6일 현충일, 오랫동안 비를 뿌리고 흐렸던 날씨는 그동안 참았던 햇살을 엄청난 무더위로 내뿜고 있었다.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세례자와 대부모 외에는 참석하지 말아 달라는 신부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성당 입구에는 졸업식장처럼 꽂 장사가더 와있었고 축하 인파가 가득하였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다짐하며 정순택 주교님의 집전으로 견진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고, 주교님께서는 땅볼의 무더위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며 그 많은 가족과 끊임없이 사진을 찍어 주셨다. 주교님의 얼굴엔 땀이 주르륵주르륵...

멀리 김포에서 아침 일찍 와주신 요안나 대모님은 이것저것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날렵한 센스로 주교님과 사진을 찍어주시며 대녀 챙겨주기에 온 힘을 기울이셨고, 번개처럼 나타



난 스텔라 자매, 지친 일상에도 함께 해준 레아 자매,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성당은 결혼식 참석을 위해 두 번 간 적이 있으나 성경책은 본 적도 없던 나는 세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베로니카 자매님(입문세례 대모님)에 이끌려 미아동 공동체를 가게 되었다. 낯설고 어색한 방문이었지만 온화한 미소로 따뜻하게 맞아 주신 베로니카 수녀님을 뵙고 눈물을 흘리며 면담을 마친 후엔 자연스럽게 영적가족이 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첫 모임에 가보니 모두가 오래전부터 천주교 신자였고 지인과 함께 참석했던 이들과 달리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나는 그 자리가 영 어색하고 불편했다. 마치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외톨이가 된 기분에 잠시나마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 세례도 받기 전에 영적가족이 된 나를 모두가 친근하게 대해 주고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그만두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버티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어색함 속에 몇 달이 지나고 피정을 함께 하며 어느덧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수녀원 모임이 끝나면 차를 마시고, 치맥과 왕수다를 함께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위로하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3년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꽤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를 함께 해왔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다. 생면 부지의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생각하다가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사람이 4명 이상 모이면 누군가는 조금 튀기 마련이고, 다양한 개성이 나타나서 비빔밥처럼 자연스

쉽게 섞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9기 가족은 모두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어울려서 신기할 정도다.

한동안 ‘세례받기도 전에 영적가족이 되었다’는 자매로 소개되던 나는 세례를 받자마자 또다시 대모님에 이끌려 ‘하상바오로의 집’에서 노숙인을 위한 급식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선 봉사자들이 식사 전에 ‘삼종기도’를 바치는데 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봉사를 다녀오는 날은 뭔지 모를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연로하신 형제·자매님들이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기도 하였다.

백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적가족이 되어버린 나는 모임을 통하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도와 감사, 욕심 줄이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환경보호 등등... 그동안 머릿속에 글자로만 있던 것들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어느 날 ‘견진성사의 은총으로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지난 1월 시작한 ‘명동밥집’이 떠올랐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상바오로의 집’이 문을 닫아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 듯 더 가까운 명동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번 견진성사의 은총은 ‘봉사’였던 것이다.

주님의 자녀로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견진성사의 은총을 받으며 한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평화”라는 한 단어로 남겨주시어 언제나 기억하며 실천하도록 당부하신 것이리라.

### “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며 ”

금미경 베로니카.FMM

저는 수녀회 홍보를 담당하는 수녀님(달력 디자인)과 함께 6월에 경북 화령에서 생태적 삶과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사는 우리 수녀원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학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슴 설레며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부푼 마음으로 수녀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우리를 맞이한 수녀님은 파란 바게스에 고사리를 꺾어 담고 계셨고, 뒷밭에는 수탉 울음소리, 꾀꼬리 소리, 밭에는 거름 더미와 다양한 모종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마셨던 공기와는 달리 맑고 깨끗한 화령의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밭의 이곳저곳에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살펴보기에 바빴습니다. 닭장에 병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닭장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병아리는 엄마 닭 옆에 붙어 다니며 낯선이의 방문을 경계하며 작은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땅속에서 우리의 방문을 반기는 시골쥐가 갑자기 출현하여 저희는 소리를 지르며 닭장을 뛰쳐 나왔지요. 지금까지 상쾌하고 맑은 공기와 파릇파릇한 초록의 낭만은 쥐를 보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고, 시골 생활이 낭만적이지만 않다고 들었던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화령수녀원은 1994년 9월 안동 교구장 박석희 주교님과 화령 성당 신대원 신부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안동교구의 농촌 지역과 함께 할 공동체로 처음에 3명의 수녀로 구성했습니다. 본당 봉사와 농사, 농촌 일손 돋기, 가정 방문 등을 하며 우리 농촌 살리기를 외치는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과감한 시도로 여러 신부님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주목을 받으며 수녀원이 화령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이 점차 수도생활에 흘러들어오는 즈음 저희에게도 가난하고 단순한 프란치스칸 생활양식을 살도록 재촉해주는 자극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농한기와 농번기에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더 농민들의 삶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본당 봉사, 농사, 가정 방문과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포도농사를 몇 년간 짓다가 그곳에 고사리, 꾀지뽕, 자두, 감나무 등을 심어서 돌보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대를 꺾어 삶은 후 말리고 꾀지뽕은 짬을 만들고, 매실은 엑기스를 담그고, 야콘은 수확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해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서 심고 거두는 농작물은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지구생태계를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상황에서 농작물을 관리하는 수녀님은

- ◉ 우리가 사용한 음식물 쓰레기(야채, 과일 껍질 포함)는 유기농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 ◉ 농약대신 막걸리와 설탕을 섞어서 농작물의 벌레를 퇴치하고
- ◉ 계피와 설탕을 섞어서 끓인 물을 이용해서 진딧물을 퇴치하고
- ◉ 밭은 갈지 않고 비닐 대신 제초매트를 사용하고
- ◉ 땅에 유기농 퇴비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여 같은 자리에 같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 ◉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고
- ◉ 공동으로 함께 농작물을 경작하고
- ◉ 수확한 농작물은 소득을 내지 않고 나누어 먹고
- ◉ 세상을 위한 기도는, 노동을 통해 흘리는 땀으로 봉헌하는 반관상적 삶으로
- ◉ 자립자족의 삶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아름다운 꿈을 하나씩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구를 살리는 것의 긴급성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화령공동체 수녀들은

- ◉ 무상으로 주시는 하느님의 모든 선(좋음)을 다시 돌려드리는 가난의 삶을 지역 사회 안에서 영적, 물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생명환경 연대활동에 동참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합니다.
- ◉ 자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웃들에게도 권유하고
- ◉ 자연농산물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연결하고
- ◉ 함께하는 이들과 충분함의 윤리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의 아름다운 꿈 얘기를 들이며, 직접 밭에서 기른 농작물로 차린 점심 밥상, 우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전부터 기다리며 준비해주신 밥상을 맛있게 먹고 오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수녀님의 소박한 꿈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방법을 찾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은 어느새 제 마음에도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p@hanmail.net

##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숙자(조정권)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검단성당
강지우(왕효준)	검암동빈첸시오	고대완	고월순	고은하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창용	공해용	곽태열	구영희	구웅희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현루가	김두환(김철형)	김득수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샛별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순	김영운	김영준	김옥림	김옥주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회
김재식	김정숙마리아	김정애	김정연홍수봉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주	김정혜(정구총)	김정화	김주영	김주옥	김주희	김준희	김지혜
김진숙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욱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현희	김혜겸	김호생	김호송	김홍양	김화자	김희재	나숙희
노근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정애	당효준
명영희	문성식	문준식	민정웅	바이올가제주	박금난	박기선	박라희(임영희)
박병옥(송덕규)	박병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다니엘	박성준도미니꼬	박성현		
박소진(농협)	박수인	박순옥	박양순	박연애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찬주
박해필	박현희	박화자	박회수	박효정	박희순	방상만사도요한	방웅
배윤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빈창숙
서태진	서현수	서혜석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명순)	송순이	송순이(화령)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동규	신승일	신승현	신재진	신주선(신유경)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공연	양미경
양종한	오숙자	오승훈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병숙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ENG(김진식)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세인부동산)
유은정	유주영	유춘성	유혜정혜레나	유회숙프란치스	육동배	윤경숙	윤구자
윤군자(김호송)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경석	이관훈	이광희	이기향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자	이민희
이상문	이성남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성호(조봉례)	이연신	이연실	이영미
이영복	이영애	이옥자	이요셉조마리아	이용길(현궁주물)	이윤신	이윤옥	이은미
이은주	이인동	이인숙로사	이임수(송재용)	이정란(최윤)	이정숙마리아	이정숙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소피아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창석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도원(임영희)	임승옥	임윤섭	임주리	임지원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영문	장영순	장영표	장원태	장은미	장현아	전보민	장세옥
정경원	정경필	정광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미화	전영관
정성민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인순	정재영	정미희
정진숙	정향숙점마	정현민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정부강
조석금	조성자	조일수	조정희	조중혁	조혜영	조화숙	정석영
지정희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미양	정진명
최순애	최연희	최영호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조남섭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휘선	추상식	추영숙	추종현	조상위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한규영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허준자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홍세아	홍승희	허정자